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 (2026년 10월 호)



초대의 글



〈사진: 동문회 회장 최신성 목사〉

귀한 마음을 담아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동문 여러분의 삶과 사역 가운데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클레어몬트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고, 부르심을 받은 각자의 사역 현장에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며 헌신해 온 동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함께해 주셔서 캠퍼스에서 나누었던 즐거운 추억을 되새기고, 각자의 사역 현장에서 경험한 소중한 이야기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모임이 지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사역을 향한 열정과 힘을 다시 얻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초대장을 받으신 분들은 주변의 동문들에게도 널리 알려 주시고 참석을 권해 주셔서, 더욱 많은 동문이 함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동문들과 해외에서 사역하고 계신 동문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모임을 위해 귀한 장소와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불꽃감리교회와 공성훈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10월 16일(금) 오전 11시 불꽃감리교회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클레어몬트 신학교 한국동문회
회장 최신성 목사
계산중앙교회

CST 한인 학생회 추석 모임 개최



〈사진: 2026 CST 한인학생회 추석 모임 단체사진〉

지난 9월 20일 주일, CST 한인 학생회가 추석을 기념하여 크레센타벨리 연합감리교회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은 CST 재학생 Kevin Kang과 한인 학생회장 이혜인을 중심으로 준비되었으며, 학업과 목회 사역으로 바쁜 한인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추석의 기쁨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이번 모임에서는 참석한 학생들이 각자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교회에서 직접 요리하며 함께 추석 식탁을 마련했다. 학생들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요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근황과 학교생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가운데 한국의 명절인 추석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인 학생들 간의 교제를 더욱 깊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모임에는 CST 동문인 임요한 전도사, 장한나 전도사가 참석하여 재학생들과 함께 교제했다. 또한 CST 신입생과 예비 신입생들을 초대하여 서로를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도 마련되었다. 재학생과 동문은 새롭게 CST 공동체에 합류한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학교생활과 사역에 대한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다.

한인 학생회의 모임을 위해 여러 교회와 개인들의 따뜻한 후원도 이어졌다. 벨리연합감리교회와 안디옥 장로교회, CST 송민환 교수, 그리고 CST 동문 장한나 전도사의 후원으로 이번 모임을 더욱 풍성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이번 추석 모임은 단순한 식사와 친교의 자리를 넘어, CST에서 신학을 공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한인 학생들과 동문이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재학생과 동문, 신입생 및 예비 신입생이 함께 모여 교제함으로써 CST 한인 공동체의 연결과 유대감을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CST 한인 학생회는 앞으로도 학생들과 동문이 서로의 학업과 사역을 격려하고, 함께 교제하며 공동체의 유대감을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만남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사진: 함께 준비한 추석 음식을 나누며 풍성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새로운 배움의 여정을 시작하는

D.Min. 신입생을 소개합니다



D.Min. 신입생 소개 | 고석재 목사



〈사진: 고석재 목사〉

안녕하세요. 2027년 겨울학기에 입학하게 된 고석재 목사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만나고 삶을 나누면서 목회자에게 신학을 공부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현실에서 마주하는 문제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목회자로서 어떻게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지 배우기 위해 이번 박사 과정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학업과 연결해 보고 싶습니다. 사역에서 생기는 질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공부한 내용을 다시 목회 현장에 적용하면서 지금까지의 목회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할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CST에서의 공부를 통해 새로운 지식만 얻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교수님들과 좋은 목회자분들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배운 것들을 실제 목회에 잘 연결하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귀한 배움의 기회를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진: 김기진 목사〉

샬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Winter 2027’부터 CST에서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을 공부하게 된 김기진 목사입니다.

저는 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청양지방에 속한 정산감리교회에서 담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목회자의 소명은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무엇보다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동행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할 소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에는 단순한 지식이나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과 아픔, 그리고 신앙의 여정이 있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 영혼을 진실하게 돌보기 위해서는 목회자로서 저 자신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서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곤 합니다. 이러한 목회의 고민과 소명 가운데 더 깊은 신학적 성찰과 목회적 배움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CST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에 Winter 2027부터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지식을 위한 배움에 머무르지 않고, 이번 박사과정을 통해 배우고 고민하는 모든 것들을 다시 목회 현장으로 가져와 성도들의 더 나은 신앙성장을 위해 적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모든 박사과정에 겸손한 마음과 성실한 모습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하실 모든 박사과정분들께도 하나님의 지혜와 선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김명현 목사〉

주 안에서 좋은 하루입니다! 2027년 CST 클레어몬트 D.Min 겨울과정을 시작하게 된 김명현 목사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칠흑 같은 어두운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빛을 향해 살아가도록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목회적 소명으로 받아 인천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현재 ‘좋은하루교회’를 4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며 가정의 깨어짐으로 고통받는 이들,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을 고민하는 아이들, 보호시설에서 나온 후 홀로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청년들, 그리고 부족함 없이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때로 상처 입은 마음을 품어야 했고, 이미 형성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이들에게 복음이 왜 여전히 필요한지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앙이 교회에 안에서만 아니라 일상에서 드러나도록 양육해야 했습니다.

이 경험은 제게 더 깊은 신학적 성찰과 목회적 지혜의 필요를 깨닫게 했습니다. CST D.Min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목회 경험을 신학적으로 성찰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질문과 아픔에 복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목회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덕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돕는 목회를 이루어가고 싶습니다.



〈사진: 이민규 목사〉

안녕하세요. 저는 2027년 겨울학기에 입학하게 된 이민규 목사입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씨앗감리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말에 부임하여, 어느덧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수련목회자, 부목사 사역을 감당하고, 지금의 개척교회에 부임했을 때,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듯 했지만, 광야 속에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노방전도와 관계전도로 새가족이 찾아오고, 온라인 등록자가 생겨나고, 올해는 청년부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작은 교회지만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층적인 갈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어떤 방식으로 드릴 것인가? 설교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청년들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상처받은 가정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노년층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등의 실제적인 질문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현장에서 만날 때, 현상을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보다 근원적이고 변혁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인 목사님의 소개로 CST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과정을 알게 되었고 오아시스에서 물을 만난 것처럼 기쁨을 얻었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CST를 선택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갈등의 치유와 회복, 변화를 지향하는 학교의 학문적 방향이 저의 목회적 지향점과 온전히 부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의 핵심 가치인 연민, 정의, 소속감이라는 이 세 가지 가치는 실제 목회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목회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게 설렘으로 다가온 것은, CST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해서 얻은 실천적인 목회 전략을 현장의 성도들에게 직접 나눌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늘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듯이, CST에서의 배움은 성도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서 그곳에서 갈등의 치유와 변화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선물로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깊이 있는 신학적 탐구와 목회 현장의 실천을 잇는 연구의 답을 CST에서 찾아가고 싶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교수님들의 가르침과 함께하는 동역자들과의 학문적 연대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목회 여정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제가 읽었던 멀린 캐러더스의 『감사의 능력』이란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까지도 완벽하게 계획하신다.” CST에서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믿고 겸손하게 배우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지선묵 목사〉

4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저는 목회가 단순히 답을 찾는 일이 아니라, 더 깊고 본질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여정은 한국에서의 신학교육과 목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 한인 이민 공동체를 섬기면서, 이민과 문화적 차이, 세대의 변화, 갈등과 상실, 그리고 공동체의 전환이 교회와 신앙의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까이에서 경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교회가 이미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시대와 세대의 변화 속에서 끊임없이 듣고 배우며 성장해 가는 살아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삶과 목회의 이 시점에서 다시 배움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CST에서 목회학박사(D.Min.) 과정을 시작하는 것은 단순히 또 하나의 학위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랜 목회 현장에서 마주했던 질문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 질문들을 성경과 신학, 연구와 동료들의 경험과 함께 깊이 성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교회가 소중한 신학적 전통에 충실하면서도 새로운 세대가 자신의 자리와 목소리를 발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길을 탐구하고 싶습니다. 또한 목회적 리더십과 화해,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와 사회적 현실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신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지를 더 깊이 배우고자 합니다.

오랜 세월 목회한 뒤 다시 학생이 된다는 것은 제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 목회의 길로 나를 이끌었던 질문들 앞에 다시 서는 일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의 목회 경험을 성경과 신학, 연구, 그리고 동료 학생들과의 대화 속에 놓고,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살펴보며 이해와 목회적 실천을 새롭게 하고 싶습니다.

이번 배움의 시간이 제가 더 주의 깊게 듣고, 더 깊이 성찰하며, 더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과 공동체를 섬기도록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와 연민, 화해와 소망을 품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한 걸음 더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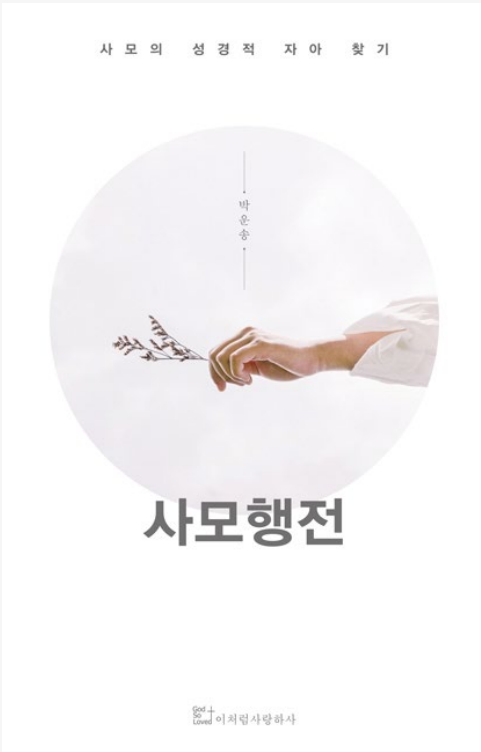
〈사진: 박운송 목사, D.Min. '18〉

샬롬. 저는 2018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D.Min.) 학위를 받은 박운송 목사입니다. 현재 엘피스 패밀리 대표로 사모님들을 섬기며, 로스 팰리스 교회 협동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1980년대부터 사모님들과 가까이 지내며 그분들의 삶과 이야기를 들어 왔습니다. 교회가 사모에게 많은 역할을 기대하면서도, 정작 사모가 겪는 외로움과 어려움에는 충분히 귀 기울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모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저의 목회 소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클레어몬트에서 「이민 목회자의 아내의 정체성」을 연구했습니다. 논문을 세심하게 지도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 이경식 부총장님과 따뜻한 격려와 도움을 주신 김남중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구와 사모님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2021년 『사모행전』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사모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전하고, 사모의 정체성 회복과 교회의 성숙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책을 펴낸 뒤에도 엘피스 패밀리를 통해 정기 중보기도회와 힐링캠프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사모님들이 잠시 사역의 무게를 내려놓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올해 열린 제 6회 힐링캠프의 주제는 ‘내 영혼의 회복과 소명의 길’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말씀과 기도, 대화와 다양한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앞으로의 길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클레어몬트에서 품었던 질문이 책을 거쳐 사모님들을 만나는 사역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사모 한 분 한 분이 존중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사진: 엘피스 사역 단체사진〉



〈사진: 이현재 목사, Ph.D. 재학생〉

안녕하세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Spiritual Formation을 전공하며 Ph.D. 과정을 밟고 있고, 현재 오리건주 Salem-Keizer 지역의 Keizer Clear Lake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현재입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한인 동문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 반갑습니다.

저는 2023년부터 현재의 교회에 파송 받아 목회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단과 따뜻한 회중을 만나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올해에는 저희 교회가 Oregon-Idaho Annual Conference에서 One Matters Award를 수상하였으며, BIPOC Fund와 District Grant, 그리고 Faith Foundation의 Small Mini Grant 등 여러 지원도 받게 되어 새로운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올해는 특별히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한국과 미국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드린 결혼 예배에서는 저희 두 사람이 서로에게 서약하는 것뿐 아니라, 예배에 참석한 회중과 교단의 목회자 및 관계자들도 아내가 새로운 환경에 잘 정착하고 저희 가정이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동행하겠다는 뜻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많은 분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 새로운 가정을 시작할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진: 이현재 목사 결혼사진〉

앞으로는 연합감리교회에서 준회원(Provisional Elder) 과정을 잘 마치고 정회원(Full Connection Elder)으로 나아가기 위한 안수 과정을 준비하는 한편, 학교에서는 논문을 위한 과정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두 여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아내가 미국에서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하고, 저 또한 목회자이기 이전에 아내를 사랑하고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클레어몬트에서 함께 공부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하고 계신 모든 동문 여러분도 늘 건강하시고, 맡겨진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6-2027 기부현황

차세대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귀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 -

Donor Name • 성함은 기부일자 순입니다.

이경식 부총장
월서연합감리교회
LA연합감리교회

T. Y. Suhr 서태원 기념 장학금 (서동영 장로)

기부총액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 기준)	\$25,100
KEF 잔액(1990.03 - 2026.09):	\$2,611,654
KLS 잔액(2018.10 - 2026.09):	\$888,583
General Fund(2024.03 - 2026.09):	\$13,728

•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